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사회탐구(생활과 윤리) 영역 분석

1. 출제 경향

* 출제 경향 특징

1. 편중된 단원 없이 전체적으로 단원별로 고르게 출제되었다.
2. 실생활과 관련된 문항들이 많이 출제되었으며, 사상가나 사상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항들이 많이 출제되었다.
3. 환경 윤리와 형벌과 관련된 내용에서 고난도 문항들이 여전히 출제되었다.
4. EBS 교재와의 체감 연계율은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 사탐 영역의 생활과 윤리 과목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난이도의 경우 지난 해 수능보다 높은 난이도로 어렵게 출제되었다. 대체로 모의 평가는 6월을 어렵게 출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는데 그런 추세를 이번에도 여전히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수생에 비해 재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훨씬 높을 것으로 보인다. 재학생이 아직 생활과 윤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에 대한 이해와 문제 적응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생활과 윤리 과목이 난이도를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저난이도 문항과 고난이도 문항을 적절히 배치하여 전체적으로 난이도를 잘 맞춘 것으로 보인다. 이번 6월 모의평가의 경우 기존처럼 단원별 안배는 잘 이루어졌으며, 기존에 상대적으로 출제 빈도가 높지 않았던 음식 윤리와 주거 윤리 등의 내용을 활용한 문항이 출제된 점이 새롭다. 그리고 여전히 환경 윤리와 법적 정의와 관련된 부분에서 고난이도 문제가 출제된 점은 학생들이 수능을 대비할 때 참고해야 할 점으로 보인다.

문항의 유형은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기존에 출제되어 왔던 익숙한 문제 유형들로 구성되었다. <문제 상황>에 조언을 하는 문항, 사상가들 간의 입장을 이해하고 비교하는 문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교과서 밖의 소재나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내용 및 시사적인 내용들로 문항을 많이 구성하였다. 특히 5번 문항은 요즘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로봇 윤리에 대해 다루는 것이어서 비교적 참신했다. 합답형 문항은 6문항으로 적절하게 출제되었으며, 앞으로도 적절한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해 5~6문항 정도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으로 교육과정에서 충실하게 주요 주제에 대한 사상가들의 기본 입장과 생활과 윤리 과목에 부합하는 주제들이 평가 요소로 활용되었다. 또한 윤리와 사상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 사상가를 단독으로 묻는 문항은 윤리와 사상에 나오지 않는 사상가들(하버마스, 요나스)로만 배치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EBS 교재와의 연계는 70%로 적절한 연계율을 보였다. 또한 개념 원리 활용, 자료 및 지문 활용, 문항의 축소 확대 변형 등 골고루 이루어졌다. 특히 EBS 수능 특강에 소개된 자료를 활용한 문항들을 활용해서 EBS 교재를 충실하게 공부한 학생들이라면 체감 연계율은 오히려 높게 느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난이도

※ 2016년 6월 시행 모의평가/ 2017학년도 수능과의 시험 체감 난이도 비교

영역	2016년 6월 시행 모의평가 비교	2017학년도 수능 비교
세계지리	비슷	어려움

생활과 윤리의 경우 2017학년도 수능보다 어려웠으며, 2016년 6월 시행된 모의평가와 비슷하게 출제되었다. 대체로 무난한 문항들도 많았지만, 최상위권 학생들을 변별하기 위해서 선택지가 어려운 고난도 문항을 3문항 정도 배치시킨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고난이도 문항은 환경 윤리와 법적 정의 부분에서 학생들이 이해하고 적용하기 어렵게 선택지를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15번 문항에서 ‘개체는 쾌고 감수 능력을 지녀야만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는 선지에서 쾌고 감수 능력은 싱어와 레건이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때 공통적으로 가지는 기준이라는 것을 모르게 되면 풀기 어려운 문제이다. 또한 19번 문항도 베카리아가 사회계약론적 입장과 공리주의적 입장을 모두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항이었다. 이 외에도 10번 문항에서 사용된 ‘심리학적 사실에 대한 지식’이라는 개념이 학생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EBS 교재와의 연계 분석

문항 번호	EBS 교재 연계 내용
	교재명/쪽수/문항번호(내용요소)
1	수능 특강/p.16/2번
3	수능 특강/p.190/8번
4	수능 특강/p.89/3번
6	수능 특강/p.27/2번
7	수능 특강/p.69/인류로서의 가족
8	수능 특강/p.44/5번
9	수능 특강/p.141/4번
10	수능 특강/p.125/3번
11	수능 특강/p.117/8번
12	수능 특강/p.143/8번
14	수능 특강/p.152/2번
15	수능 특강/p.105/10번
17	수능 특강/p.191/9번
19	수능 특강/p.131/9번

4. 대표 연계 문항

6월 모의평가 문항 7번	EBS 수능특강 생활과 윤리 69쪽 자료 플러스
<p>7. 다음 사상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결혼은 당사자 간의 애착과 계약에서 출발한다. 가족은 하나의 인격이며 인륜적 정신이다. 부부는 사랑의 감정으로 실체적 동일을 이루고 자녀를 통해 객관성을 지닌 결합의 전체를 이룬다. 부모는 자녀를 통해 자신들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 한편 자녀가 법적 인격과 자신의 재산을 갖추어 가정을 꾸릴 자격이 생길 때 가족의 해체가 시작된다.</p> </div> <p style="text-align: center;">< 보기 ></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ㄱ. 가족은 부모와 자식이 결합된 인격적인 공동체이다. ㄴ. 어린 자녀는 부모가 간섭할 수 없는 개별적 존재이다. ㄷ. 부부는 자신들의 자녀를 통해 진정한 사랑을 경험한다. ㄹ. 결혼은 남녀 간의 법적 계약이 아니라 애착으로 성립한다.</p> </div> <p>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p>	<p>자료 플러스 : 인륜으로서의 가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의 주관적인 출발점을 이루는 것은 혼인의 관계 속으로 들어서는 두 사람 사이의 특별한 애정이나 혹은 양친의 배려와 준비 등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객관적인 출발점은 두 사람 사이의 자유로운 동의인데, 이 동의는 하나의 인격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동의, 혼인이라는 통일 속에서 그들의 자연적이고 개별적인 인격성을 자정(止)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동의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통일은 하나의 자기 제한이지만 두 사람이 이 통일 속에서 그들의 실체적인 자기 의식을 취득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들의 해방인 것이다. • 부모 사이에서의 사랑의 관계는 아직 객관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비록 사랑의 감정이 실체적 통일을 이룬다고는 하지만 이 통일은 아직 아무런 객관성도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부모는 자제를 통해 비로소 어떤 객관성을 갖게 되며 또한 비로 이를 자제를 통해 결합의 전체를 목도하는 것이다. 어머니는 자제를 통해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자제를 통해 아내를 사랑하는 가운데, 마침내 두 사람은 자녀에게서 다음 아 닌 그 자신들의 사랑을 직감하게 된다. -해설, "법철학 권오"- <p>가족은 감정적인 애정이나 상호 간의 조건에 부합하는 계약적 관계만을 바탕으로 성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애정은 단순한 남녀 간의 결합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독자성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 즉 배우자와 동일되어 하나를 이룬다는 각자와 그 들 간의 사랑의 결실인 자녀를 통해 부부 를 바탕으로 하는 기본적인 가족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p> <p>(3) 부모 자녀 간의 윤리</p> <p>① 부모 자녀 간의 바람직한 관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자유친(父子有親):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친밀함이 있어야 함 → 부모와 자녀는 끊을 수 없는 친밀한 관계 • 부자자효(父慈子孝):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함 → 호혜적·상호적 윤리 규범 <p>② 부모로서의 윤리 실천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함 •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 • 자녀가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침

6월 모의평가 문항 14번	EBS 수능특강 생활과 윤리 152쪽 2번
<p>14.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갑: 노동은 '신이 규정한 삶의 최고 목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청교도는 소명을 인식하고 소명에 따라 노동하였다. 이러한 노동이 영리 추구와 결합하고 금융적 질약을 통해 자본을 형성하여 자본주의 정신의 토대가 되었다.</p> <p>을: 노동은 인간이 자신의 자연적인 힘을 사용하여 자연과 관계를 맺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가 생산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수단이 노동자를 사용하는 예외가 일어난다.</p> </div> <p>① 갑은 청교도가 노동을 신의 명령으로 간주했다고 본다. ② 갑은 청교도가 부의 축적을 구원의 수단으로 간주했다고 본다. ③ 을은 자본주의의 노동 분업이 노동 소외의 원인이라고 본다. ④ 을은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의 자아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⑤ 갑은 소명 정신, 을은 노동 착취를 자본 축적의 원천으로 본다.</p>	<p>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갑: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닥치는 온갖 불편과 근심거리, 지 치게 만드는 것과 걱정거리들이 모두 신께서 지휘 주시는 것임을 깨닫고 아무런 불평 없이 지고 나간다. 이렇게 하면 아주 귀한 위료가 생긴다. 곧, 여러분에게 주어졌 소명을 따라 나아가면 아무리 천하고 추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야말로 신이 보시기에는 천천하 고 고귀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p> <p>을: 생산 과정을 노동 과정의 입장에서 고찰하면, 노동자는 생산 수단을 자본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합목적적 생산 활동의 수단으로 대한다. 그러나 생산 과정을 가치 중심(價 値) 과정의 입장에서 고찰하면, 생산 수단은 즉시 노동을 흡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환된 다. 더 이상 노동자가 생산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수단이 노동자를 사용한다. 이와 같은 원도 또는 왜곡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특징이다.</p> </div> <p style="text-align: center;">< 보기 ></p> <p>ㄱ. 갑은 직업을 지상에서 신의 영광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ㄴ. 을은 노동의 몫을 분배할 때 형평성보다 효율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ㄷ. 갑은 노동에 신에 대한 봉사료, 을은 자신의 본질을 실현하는 활동으로 본다. ㄹ. 갑, 을은 개인적인 부의 축적을 노동의 궁극 목적으로 삼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p> <p>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p>

5. 2017학년도 수능 마무리 학습 전략

수능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평가원 시행 모의평가를 정리해 보면 올 해 수능을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학습 전략이 필요하다.

1) 상위권 학습 전략

기본적으로 상위권 학생들은 생활과 윤리 과목에서 어떤 단원에서 주로 고난이도 문항이 나오는지 파악해야 한다. 고난이도 문항이 많이 나오는 단원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실전 문제를 풀어서 고난이도 문항을 푸는 실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2) 중·하위권 학습 전략

중·하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EBS 수능특강 교재를 중심으로 개념 정리를 다시 한번 확실히 하고 기출 문제와 EBS 연계 교재 문항들을 많이 풀면서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나가야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